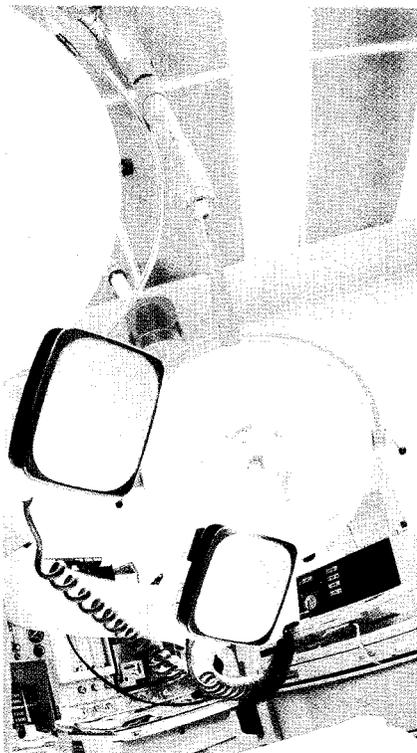


# 명사칼럼

## “의료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02-794-2474



우리 경제가 최근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본격 회복궤도에 들

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번 추락했던 글로벌 경제가 원상 복구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MF도 “세계경제 회복과정은 더디고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취업자 수가 25만명이나 감소했고, 청년실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일자리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렇다면 고용 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의료’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 의료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 건설업조차도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의료산업이 건설업의 20배에 달하는 고용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해 3638명의 인력으로 7조2710억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액 1억원당 약 0.05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인력 6,500여명으로 7,515억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액 1억



원당 약 0.86명을 고용한 효과를 거뒀다.

생산액 10억당 투입되는 취업자 수인 '취업유발계수'는 의료산업이 19.5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16.0명보다 높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867로 전체 산업평균 0.741보다 높다. 1,000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을 때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부가가치(영업이익, 임금 등)가 867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의료산업은 고용 증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유리한 부문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복합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특히 IT, BT, NT 등과 결합하면 의료산업은 그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유명 병원 하나가 한 도시를 부양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는 가장 주목받는 신성장 동력이다. 블루오션으로서 일자리와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계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이상과 같이 명쾌한 근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의료산업 고도화에 올인 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식, 특정암 치료 등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키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성과는 OECD 국가 중 5위에 이르는데, 의료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의료관광이 허용돼 세계 각지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왜 의료산업화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독점하는 단일보험자 구조의 의료체제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의료의 수급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의료사회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사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

지 못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그리고 온갖 규제와 의료서비스를 제한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의료인을 고용하고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다. 그러면서 의료반은 사유재산권과 사적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사와 환자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의사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규격진료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창의를 키울 수가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은 항상 과탄 위기여서 고질적인 저수급이 면어날 수가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과거 없이 의료산업화가** **이** 수 없다. 현행과 같은 **이**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산업화가 성공하기 힘들다. 의료구조의 변혁이 의료산업화의 전제사항이다.

의료에서도 시장기능이 숨 쉬도록 해야 한다.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가 스스로 비용을 결정하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현행의 국가독점 단일보험자 체제를 허물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종 규제를 풀어 의료인들이 국가가 명령하는 요양급여기준이 아닌 의학교과서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의료를 '복지' 차원에서만 이해할 뿐 '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까진 하지 못했다. 의료를 경제의 창(窓)으로 보질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의료산업화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의료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기술요준 2009. 8